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 박순자 최고위원의 큰 딸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7일 오후 서울 한강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사고현장인 남일당 건물앞에서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집안싸움' 野 '장외로'… 여의도 정치 실종

한나라, 쇄신론 계파간 세력다툼으로 변질

민주당, 이대통령 사과 요구 6월 항쟁 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폭풍에 따른 정국의 격랑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금속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6·10항쟁 기념집회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국의 불투명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강경한 민주당=노 전 대통령에 서거에 따른 조문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의 기세는 사뭇 결연하다.

당장,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 파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 등을 6월 임시국회 개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10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6월 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국민과 직접 교감을 통한 '거리 정치'를 최대한 활용, 6월 정국을 이끌어 가면서 민주당의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무력한 여권=여권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에 걸 맞는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선(先) 상임위, 후(後) 본회의'의 수세적 입장만으로 맞서며 6월 임시국회 문을 닫아두고 있다.

특히, 4·29 재보선 완패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민심수습용으로 부상했던 한나라당의 쇄신논의는 계파 간의 권력다툼의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도 별다른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권의 혼란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 소장 쇄신파들의 지도부 사퇴 서명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만찬 결과에 따라 여권은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표류하는 6월 국회=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개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문 정국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의사일정 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관련법안 등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후폭풍을 여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의 충돌이 재연되면서 사회 전반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親盧그룹 영향력 확대 정세균 대표 입지 강화

민주 '盧서거'로 역학구도 급변

추미애·천정배·정동영은 약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친노 인사들의 위상이 올라간 반면 비노 인사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등 민주당 내외의 역학구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우선, 당내에선 정세균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내 위상이 가장 강화됐다는 평을 받는다. 노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현재 당내 지지기반도 친노 386그룹을 주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정동영 의원의 출마와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당내 비주류그룹과 갈등을 겪으면서 리더십이 많이 약화됐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 장악력을 확고히 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 대표를 공격하면서 입지 확대를 시도했던 추미애,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민주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등 중진들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당 정체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 4·29 재보선에서 승리한 후 민주당 외곽을 압박하던 정동영 의원은 조문정국으로 인해 일단 '복당'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의 행적이 정 의원의 입지를 약화시킨 것이다. 때문에 정 의원은 한동안 복당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말할 나위 없이 친노그룹은 위상 강화를 확실히 보고 있다.

당내 인사는 아니지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확인했다. 상당수 대선후보 및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선 유 전 장관의 민주당 복당이 거론되지만, 유 전 장관이 아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안희정 최고위원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때 위기에 몰렸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히려 활동반경이 넓어졌다. 노 전 대통령 측근그룹인 서갑원, 백원우 의원도 위상이 커졌고,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광재 의원도 정계 은퇴라는 위기에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눈에 띄는 역할을 맡지 못했던 한명숙 상임고문은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장을 지낸 뒤 친노그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역학구도 변화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과도한 행보를 할 경우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MJ "지도부 사퇴하고 조기 全大 열어야"

"최고위원 행동통일 말 안돼" … 쇄신론 향배 변수로

한나라당 정몽준〈사진〉 최고위원이 7일 지도부 퇴진 및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주장, 쇄신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합책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며 새 지도부 구성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가 조기 전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최고위원이 쇄신파의 주장에 이처럼 힘을 보탬에 따라 쇄신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갈래가 한층 복잡해질지 주목된다.

또 그는 "박근혜 전 대표도 조기 전대에 참여하는 게 좋다"던 입장을 바꿔 "준비가 안됐다면 준비가 된 분들이라도 전대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출장으로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채 열린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지도부 거취와 관련해) 행동통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정 최고위원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선(先) 화합책, 후(後) 전당대회'로 좁혀졌던 지도부의 입장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정 최고위원은 작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2등으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데다, 한나라당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73.7%가 조기 전대 개최에 찬성을 표시한 점도 정 최고위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 최고위원측 한 관계자는 "현 지도부내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것은 비단 정 최고위원 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당내 입지구축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盧 전 대통령 '아주 작은 비석' 건립 시동

건립위 봉하마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인 '아주 작은 비석' 건립을 위해 건립위원회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문재인 전 비서실장,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시인, 정기용.승효상 건축가, 임옥상 화가, 안규철 조각가,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 9명의 건립위원이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가족들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유골 안장과 비석 건립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김경수 비서관은 7일 "위원들이 유족 의견을 듣고 비석 건립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봉화산, 부엉이 바위 등 마을 곳곳을 둘러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유언에 따라 이 작은 비석은 49재를 지내고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이 봉하마을 사저 부근에 안장될 즈음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어민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 2012년 교과부 한국형 TOEFL 말하기 고득점을 위해
- 광주유니버시아드 외국인 맞이를 위해
- 여수 해양 EXPO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강의형태 1:1, 1:2, 10:20, 20:40〉
초·중학교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인터넷 실시간 화상 영어! 전자칠판
외국인 1:1 매일60분
압구정영어회화
www.영어말하기.kr
압구정 Trend, 압구정 Pride
070-7433-0594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제20회시험 10월 25일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大개강 6월1일 (첫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 삶학폐지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국)9급, 매년 4월 / 7급,7월 시행 지)9급, 매년 5월 / 7급,9월 시행 ※서울 7.9급 행정직 매년 7월 시행
• 채용인원: 7.9급국가직3~4천명, 지방직4~6천명
=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等!! =
개강 6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 정독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정보실! • 지하주차장!
• 맞춤식 학원용 최신시설!
• 매월말 토요일 광학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경수 합격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D/C 교재15(%)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탄
•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윤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찍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헌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 청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